



기업명	포스코
대표자	정준양
설립일	1968년 4월 1일
직원 수	17,000명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업종 및 생산품목	열연강판 등 철강제 제조



기업명	신일인텍
대표자	노신열
설립일	1984년 11월 5일
직원 수	94명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107번길 7
업종 및 생산품목	제철설비 강구조물, 제관 및 철 구조물 정밀기계가공 등



기업명	포스마텍
대표자	김호천
설립일	1996년 9월 1일
직원 수	14명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28-1
업종 및 생산품목	제철, 철강, 특수장비 제조

CASE

7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나야나 위스캔 세인트시큐리티 닉스테크

신기술 공동개발형

有教無類

배움이 있음에 가르침이 귀하고 열의와 독려가 오가는 격의 없는 향연

有教無類(유교무류) :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뜻

인터넷나야나 차세대인터넷(IPv6) 상용서비스 구축 및 실시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IPv6 조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Google 역시 2008년부터 IPv6 기반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담 등의 이유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와의 협력을 통해 IPv6의 조기 확산을 위한 개선대책 공동개발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했다.

추진 기간

2012년 6월 1일 ~ 2012년 11월 30일

추진 목표

웹호스팅 업체와 협력을 통해 5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v6서비스 적용

추진 성과

성과공유 협력을 통한 상용서비스 조기 확대 가능

IPv6 상용화를 통한 인터넷총괄기관으로서의 KISA 위상 제고

성과의 공유

KISA → 협력업체

IPv6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주소 수요를 충족하고, 사용 편리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개발된 차세대 인터넷주소(IP) 부여방식

- 서비스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보도자료, 전시부스 제공 등)
- 협력업체 → KISA
- 중소기업 대상 IPv6 상용서비스 2년 이상 유지

위스캔

소셜협업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대외 협업활동이 강조되는 인터넷 산업 환경과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위스캔과 창조적 신기술 공동 개발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했다.

추진 기간

2012년 6월 1일 ~ 2012년 11월 30일

추진 목표

미래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소셜협업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실시(PC용, 스마트폰 App용 포함)

추진 성과

미래융합서비스와 관련한 원천기술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실천
소셜협업솔루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협업업무의 효율성 증대

성과의 공유

- KISA → 협력업체
 - 솔루션 판로확대 지원(전시부스 제공, 해외수출 지원 등)
- 협력업체 → KISA
 - 과제 산출물 중 10Copy 무상 제공(KISA 협업업무에 활용)

세인트시큐리티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분석 및 경유 유포지 탐지기술 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세인트시큐리티는 점점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악성코드 유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방어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서 대외과제 연계형 성과공유제로 추진 중이다.

추진 기간

2012년 3월 1일 ~ 2013년 2월 28일

추진 목표

악성코드 최종 유포지 탐지 및 경유지 역추적, 웹브라우저제로데이 공격 탐지 기술 개발 및 적용 상품(솔루션) 출시

추진 성과

지능형 악성코드의 선제대응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및 판로 지원을 통한 상생발전 달성

성과의 공유

- KISA → 협력업체
 - 상품(솔루션) 판로확대 지원(상품 홍보, 전시부스 제공 등)
- 협력업체 → KISA
 - 과제 산출물 기술 이전
 - 상품판매로 발생한 매출정률기술료(2%) 지불

닉스테크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 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닉스테크와의 성과공유 협약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의 해킹 공격에 대한 선제적 방어를 구축하는 중이다. 이 또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과제로서 대외과제 연계형 성과공유제로 추진 중이다.

추진 기간

2012년 6월 1일 ~ 2013년 5월 31일

추진 목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 침입 대응을 위한 가상화 침입 방지 기술 개발 및 적용 상품(솔루션) 출시

추진 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의 선제적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및 판로 지원을 통한 상생발전 달성

성과의 공유

- KISA → 협력업체
 - 기술 개발비 지급
 - 상품(솔루션) 판로확대 지원(상품 홍보, 전시부스 제공 등)
- 협력업체 → KISA
 - 과제 산출물 기술 이전
 - 상품판매로 발생한 매출정률기술료(2%) 지불

성과공유, 조직문화로 스며들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성과공유업무는 창의경영팀에서 담당한다. 창의경영팀은 경영기획 및 평가,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지속가능경영 등 기관의 전사적인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와 연계한 동반성장과 성과공유제 사업의 운영에 가장 적합한 부서로 낙점되었다고 한다. KISA의 전반적인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 다양한 사업 전개와 과제수행 부서 연결도 원활하다.

“우리는 성과공유제를 하나의 과제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 기관 전체가 성과공유제와 동반성장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과제적용이 될 수 있도록 문화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는데, KISA는 그중에서도 기금관리형이 아닌 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니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매출확대, 비용절감, 신규 사업발굴, 수익창출 등의 다양한 성과공유제를 전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저희와 같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성과공유제 도입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정을 KISA는 적극적인 성과공유제 참여로 바꿨다.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고 성장을 돕는 것이 성과공유제의 목표인데요, KISA의 목표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저희처럼 영세한 중소기업과 일 년에 수백 개의 과제를 진행하는 기관일수록 성과공유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성과공유과제를 진행한 후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사업을 끝내지만, KISA는 성과공유과제의 성공적 종료 이후에도 협력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개선과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 도입을 망설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선배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을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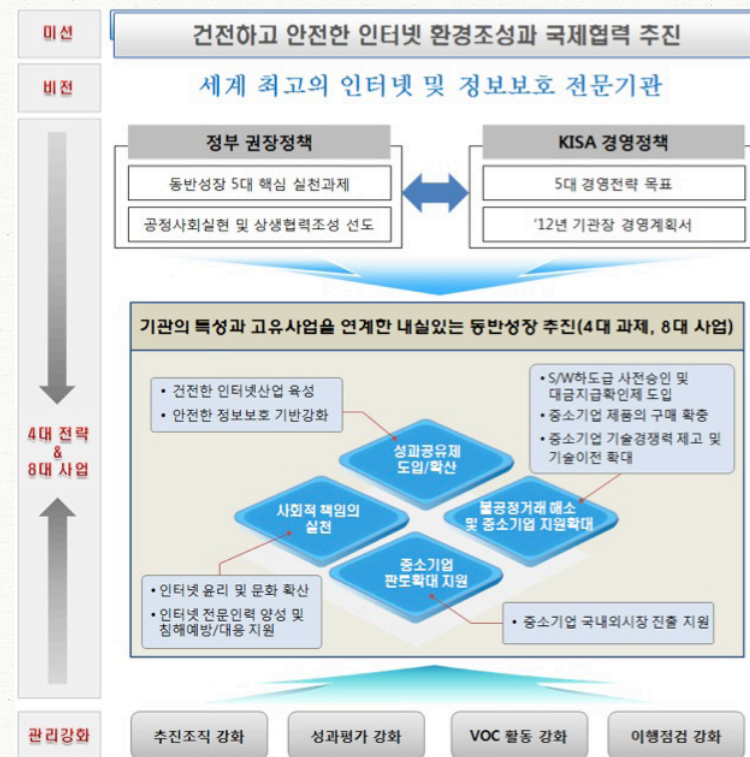
“막연한 거부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들도 하니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제 식견으로는 성과공유제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훌륭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니까요. 다만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기관의 성격에 맞게 어떤 모델로 사업을 진행할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의 사업을 완수해보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성과공유제의 필요성도 체득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KISA가 보여줄 성과공유제가 기대됐다.

“앞으로 저희는 기관의 특성과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 밀착형, 맞춤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상대하면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경영의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성에도 불구하고 상품력과 영업력이 부족한 경우 등등 취약점이 제각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비 지급, 판로개척 지원, 기술이전,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타 공공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등을 통한 IT 분야의 성과공유제 롤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성한 책임연구원



KISA의 동반성장전략체계도

성과공유제를 기관의 존재의미와 연결시킨 KISA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내년 사업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다. 열정을 가진 중소기업에 성과공유의 파트너로서 먼저 손을 내민 KISA 같은 기관이 전국 곳곳에 있다면 도움과 기회가 필요한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에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성과공유, 문화로 뿌리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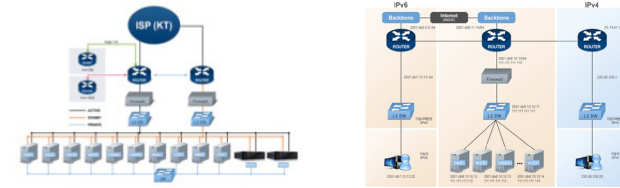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2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에 동반 성장을 “주요 지속발전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공유제를 핵심과제로 지정해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ISA는 유기적인 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ISA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시에 1팀 1과제 운동, 동반성장 경진대회 등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성과공유제를 체감하고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마무리되거나 진행 중인 4건의 성과공유제 사업들은 KISA의 감격스러운 첫 열매다. 우수한 기술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들이 성과공유제를 만나 KISA와 만들어가는 끈끈한 파트너십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1 개선대체 공동개발형 성과공유제

인터넷나야나 : 차세대인터넷(IPv6) 상용서비스 구축 및 실시

웹호스팅과 서버호스팅, 도메인사업의 선두기업 인터넷나야나는 KISA와 함께 국내 최초로 차세대 인터넷인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의 상용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IPv6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체계인 IPv4에 이어서 개발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표현 방식의 차세대 버전이다. WWW로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체계 IPv4를 4배 확장한 128bit의 주소체계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터넷 도메인의 구세주가 될 다음 세대의 인터넷 주소체계로



IPv6 구축 현황

보면 된다.

올해는 특히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들이 IPv6의 상용화에 많이 참여한 상태다. Google, CNN, YOUTUBE 등이 참여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 역시 차세대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과도기라는 얘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6월부터 KISA와 함께 성과공유과제로 IPv6 구축을 개발한 인터넷나야나의 성공사례가 최초의 상용화 서비스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으로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IPv4 환경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IPv6 환경으로 변환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돼 현재 대기업들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쉽게 얘기해 IPv6를 사용하려면 현재 왕복 2차선인 국도 상태의 인터넷망을 16차선 고속도로로 길을 다시 깔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성과공유과제는 그 대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이번 기술은 과도기적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IPv4와 IPv6를 모두 지원하는 단독 DNS를 구축하여 기존 환경과의 호환성을 유지한다. 또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에 IPv6를 구성하여 웹서버, FTP, 메일,

MySQL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IPv6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추후 IPv4 서비스가 종료되고 IPv6로 전환한다고 해도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그 변화를 알지 못한다. 일반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기저에 있는 망의 체계만 확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사용자는 급증하는 데 반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신규 IP주소 발행은 없다는 공문이 올해 발표됐다. 그렇다면 이번 성과공유제 사업은 최초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IPv6의 국내 입성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 더군다나 KISA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협력으로 과제 수행 기간보다 빠르게 상용화가 시행된 IPv6 서비스는 국내 최대 규모 네트워크 시스템인 KT-ICC에 입주하여 이미 전국망 네트워크와 최신 시설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목표였던 계정 50건은 이미 달성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 중인 IPv6 서비스는 미래를 개척하는 호스팅 전문기업 인터넷나야나 개발팀과 두 팀장의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처음 KISA의 사업공고를 보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을 때도 인터넷나야나는 회의적이었다. 국내에는 참고할만한 기존 연구 데이터도 없었고 아직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열악함은 오히려 처음이라는 설렘을 가져다 주었다.

인터넷나야나 시스템 엔지니어팀 진성호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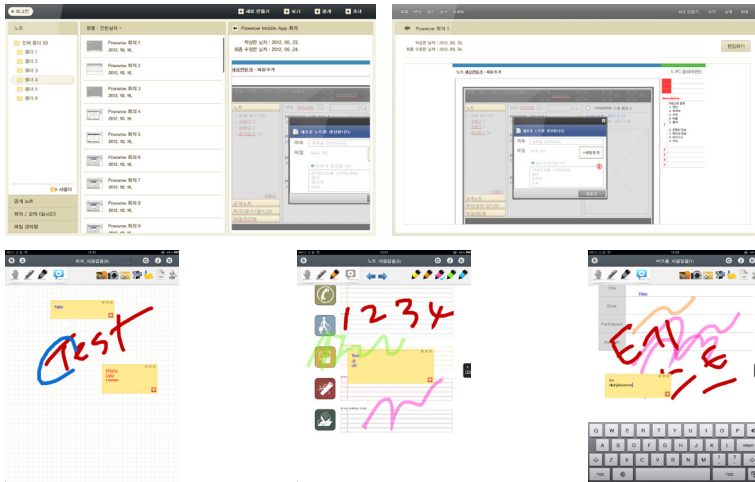
이번 성과공유제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도입 비용 및 신기술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았던 IPv6 웹호스팅 서비스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 인터넷나야나는 IPv6 웹호스팅 시장을 선점하고 신규 회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KISA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IPv6에 대한 사용자 인식이 확대되면 기업 인지도 상승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은 분명 모험이다. 하지만 용기를 낸다면 그 모험은 아무도 밟지 않은 새벽 눈길을 걷는 것처럼 최고의 희열을 안겨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2 신기술 공동개발형성과공유제

위스캔 : 소셜협업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실시

화상회의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며 협업할 수 있는 형태다.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회의 내용과 검토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위스캔이 공동 개발한 powwow는 Smart Device(스마트폰, 패드,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등)와 PC 기반에서 융·복합형 콘텐츠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게다가 저렴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장점이 있어 상용화가 되면 사회 각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사업 요건을 두루 갖춘 아이템이다. 스마트 기반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별 분업보다 지식 교류와 기술 공유를 위해 협업의 필요성이 높아지



문서 공유 기반의 회의/강의실 개설과 참여가 가능하며, 모든 문서에 실시간 협업을 문서, 필기, 메모 기능을 지원 아이디어, 업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 노트, 리포트/회의록 등 특정 형식을 갖춘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템플릿 기능을 제공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로컬 파일을 이용가능, 이메일/클라우드를 활용한 문서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을 제공

powwow의 실제 테스트 적용 화면

먼서,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보급형 솔루션이 필요했다. Powwow의 아이디어는 신생기업 위스캔에 있었고, KISA는 가까운 미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성과공유의 취지에 딱 맞는 과제로 선정될 수 있었다. 70%의 개발비를 지원 받아 2012년 말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powwow는 현재 상용화 과정을 위한 최종단계만 남은 상태다.

Powwow는 동일한 공간에서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도 참석자 전원이 자신의 단말기에 앱만 설치하면 동시에 화면 변화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현재 시중에는 3~4명이 공유하는

제품은 나와 있으나 금액은 6인용 사무실이라 했을 때 1억 5천 이상의 설치비가 소요된다. Powwow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가 가능해 현재 5달러 안팎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천 명 이상 동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대외 협업활동이 강조되는 인터넷 산업 환경과 모바일 오피스가 활성화되는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 회의나 교육, 그 내용의 동영상 녹화, 스마트 노트와 템플릿, 자료 공유 및 배포 기능을 모두 탑재해 창조적 신기술 공동개발형 성과공유제로 선정될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번 성과공유제 사업은 위스캔에게는 KISA와의 첫 협업으로, 위스캔은 개발비와 제품의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았다. 또한 KISA 역시 가능성 있는 신생기업과 상품성 있는 제품을 공동 개발해 KISA 내부와 IT 분야에 활용도가 높고, 즉각적인 업무투입이 가능한 제품을 함께 완성할 수 있었다. KISA의 기관 설립근거가 인터넷의 활용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성과공유제의 취지를 위해 만들

어졌다 싶을 만큼 완벽한 과제였다.

11월 20일 1차 개발 완료 후 시범서비스 중인 Powwow는 현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2012년 연말까지 상용화 목표를 가뿐하게 달성할 예정이다.



위스캔 이태호 대표 이사

#3 대외과제 연계형성과공유제

세인트시큐리티 :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분석 및 경유/유포지 탐지기술 개발

국내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보안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세인트시큐리티는 오래전부터 악성코드 관련 보안업무를 해왔으며 직원들 대부분이 해커 출신으로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번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분석 및 경유와 유포지 탐지기술 개발은 KISA와의 공동개발형 성과공유제 사업으로, 이 기술을 상용화했을 때 사업성에서 상당한 매력을 가진 과제다. 대부분의 보안 업체가 이 같은 분석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여러 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해 실제로 매출 성장의 가능성도 높은 연구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지금까지의 보안 솔루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백신의 동작방식은 악성코드를 수작업으로 분석해 특정 패턴이 있는지 알아보고 패턴이 걸린다면 삭제하는 일을 한다. 문제가 있다면 악성코드는 중앙센터에서 알려진 것들만 처리된다는 것인데 하루에도 수만 건의 악성코드가 생기는 현실에서 백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악성코드가 더 많다.

여기에서 이번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분석 및 경유와 유포지 탐지기술 개발은 큰 진화를 보여준다. 첫 번째 진화는 기존에 알려진 패턴과 그 밖의 방법들을 모두 실행시켜 피해 여부로 코드를 판단하게 된 점이며, 두 번째는 시스템으로 악성코드를 자동수집하고 있어 하루 수집 건이 만 건 이상이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기술은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각 백신사의 백신 필터링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 이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빠른 대응속도다.

기존에는 언노운파일, 즉 악성코드가 발견되거나 수집되면 일일이 사람이 분석해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했었다. 하지만 이 기술 개발로 그 부분을 자동화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치료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점점 고도화, 지능화되는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는데, 악성코드를 발견하면 경유지와 유포지까지 탐지할 수 있어서 최초 경유지나 유포지에서 원천적 차단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완성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터 바로 사용자들이 백신에 적용하게 될까? 세인트시큐리티의 정가람 팀장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다. 일반 사용자가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중앙 연구소나 센터에서 기술 분석을 통해 백신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원천적인 차단 방식이 된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악성코드의 천적이 개발되기까지 KISA와 세인트시큐리티는 어떤 협업을 하고 있을까? 공공기관인 KISA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을 돕는다.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 세인트시큐리티는 지능형 악성코드의 선제대응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을 개발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판로 지원을 받아 상생발전을 달성한다.



세인트시큐리티 기술개발부 선진기술개발팀 정가람 팀장

물론 기술개발비 지급과 지원에 대한 성과를 나누기 위해 상품 판매로 발생한 매출정률기술료 2%는 추후에 지불하기로 계약되어 있다. 이번 성과공유과제는 KISA와 업체의 기술 개발 그리고 매출 발생이라는 이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모든 사용자에게 유용한 보안기술을 제공하게 됐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4 대외과제 연계형성과공유제

닉스텍 :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보안 기술 개발

SF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번 성과공유제 사업의 과제명은 몇 가지 기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오늘날 개인 PC가 아닌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하나의 서비스로만 사용한다는 건 장비를 고작 1%만 사용하는 낭비인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나의 장비에 여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나의 장비에 여러 대의 가상 장비를 두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관리하는 주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른다.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PC로 예를 들자면, PC를 켜면 OS로 윈도우가 나오는데 하이퍼바이저는 그 한 대의 PC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윈도우들이 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매니저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일반 기업들이 하나의 장비가 필요하면 새로 사는데 아니라 KT나 SK를 통해 가상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기업마다 물리적인 장비를 구입하는 건 비용 면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가상의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운영주체도 운영비

를 받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에 가상 머신이 여러 개 구동되다 보면 과부하가 되거나 다른 머신들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된다. 그럴 때 가상 머신들의 질서를 세우고 순서를 만들어주며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하이퍼바이저이며, 머신들의 정확한 구동과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이번 성과공유제의 과제이다.

이번 과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필요로 시작됐다. 현재 클라우드와 하이퍼바이저 기술은 해외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초기 단계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보안기술 쪽으로 아직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시장이 커지면 국내 보안업체들은 해외업체에 자리를 빼앗겨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 그래서 KISA가 나서서 보안업체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 클라우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 기획한 과제가 바로 이번 성과공유제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닉스텍은 리눅스 기반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다. 현재 전체 개발의 1단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KISA와 닉스텍은 가열차게 스터디와 세미나를 통한 공동 연구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닉스텍 양승용 이사

성과공유제는 하나의 과제를 대기업 혹은 공사와 중소기업이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결과를 나누는 게 기본 개념이다. 현금화되는 당장의 이익만큼 공공의 필요와 개발이라는 무형의 성과도 분명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공유의 결과임이 틀림없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이기주 원장
설립일	2009년 7월 (구)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구)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통합
직원 수	569명(조직 : 2실 2본부 1센터 10단(46팀)) ※ 2012년 10월 22일 기준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가락동 79-3) 대동빌딩
업종 및 생산품목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NAYANA

COMMUNICATION

기업명	인터넷나야나
대표자	황철홍
설립일	2001년 5월 11일
직원 수	3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타워 1107호
업종 및 생산품목	호스팅, 도메인, IDC, 홈페이지제작

wescan

기업명	위스캔
대표자	이태호
설립일	2011년 6월 1일
직원 수	1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49-15 삼정빌딩 2층
업종 및 생산품목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소셜컨텐츠 인식 솔루션, 소셜 플랫폼, 소셜 협업 솔루션 등

SAINT SECURITY

기업명	세인트시큐리티
대표자	박희수
설립일	2004년 11월 1일
직원 수	15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508호
업종 및 생산품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종

NICS TECH

기업명	닉스테크
대표자	박동훈
설립일	1995년 10월
직원 수	134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 센터
업종 및 생산품목	보안 소프트웨어 및 보안 네트워크 장비

CASE

8

현대모비스 에프티이앤이 우창산업

신제품 공동개발형

伯樂一顧

숨은 가치를 발견하는 예리한 지지

伯樂一顧(백낙일고) : 명마가 백낙을 만나 세상에 알려진다 뜻으로, 자기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말